

##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엑세스 학술지 편집인 회의’ 출범 취지문

2018년 4월 20일 문헌정보학 분야 8개 학술단체가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단체의 오픈엑세스출판 선언’을 하였다. 그 후 선언에 참여한 학회는 오픈엑세스 TF를 구성하여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OA출판 전환 로드맵’을 개발한 후 작년 12월 말 그 활동을 종료하였다. 현재 상용 DB와 저작권 계약이 종료된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는 각각 각 학회의 사정에 맞추어 오픈엑세스 학술지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학회들은 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오픈엑세스로 전환할 예정이다.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은 학회 내부적인 규정 및 정책의 변경과 출판비용 확보, 전주기 출판플랫폼의 개발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 영역의 학술정보서비스기관, 연구비지원기관, 학술연구도서관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것은 개별 학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우리 분야 학회가 공동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 7개 학회는 우리 분야 학술지의 오픈엑세스 출판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 및 기록학 분야 오픈엑세스 학술지 편집인 회의’(이하 ‘편집인 회의’)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회의를 통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에 적합한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 모델을 모색하고,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문헌정보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 ‘편집인 회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1.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 문헌정보학 분야를 위한 지속가능한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모델을 모색한다.
3. 문헌정보학 분야 오픈엑세스 학술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가시성이 높은 상태로 서비스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4. 문헌정보학 분야 오픈엑세스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편집 방안을 모색한다.
5. 문헌정보학 분야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위하여 국가도서관, 대학 및 연구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도서관계가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협력한다.
6. 문헌정보학 분야 오픈엑세스 학술지 출판을 위하여 정부 및 연구지원기관과 협력한다.
7. 기타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8.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편집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2019년 11월 22일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학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